

투데이

‘선분양 50%’ 영광 대마산단의 기적

내년 완공 앞두고 109만㎡중 53만㎡ 분양
2326억 생산유발 기대...타 산단 개발모델로

영광 대마산단단지 착공 1년만에 선분양률이 50%에 육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남 서부권 지방산단으로서 기적에 가까운 기업유치 실적이다.

26일 전남도와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 대마산단은 현재 조성중인 전체 산업용지면적 109만㎡(33만평) 가운데 48%인 53만㎡(16만평)를 선분양했다.

KCC건설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 탑골로에서 시행, 본격적인 조성에 나섰다. 2012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실제 영광군은 대마산단 착공 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생산기업 유치를 목표로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규 투자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년동안 최대 2억원, 5년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남도 역시 박준영 지사의 지시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마산단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대마산단의 쾌거는 사업 포기 상태거나 중지된 전남지역 타 산단 및 미분양 산단 등과 비교되면서 개발모델이 되고 있다.



6·25 참전유공자들의 거수경례

6·25 전쟁 61주기를 지난 2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참전유공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연차 前태광실업 회장 법정 구속

징역 2년6월 벌금 190억

서울고법 형사1부(조혜현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

으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 회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연합뉴스

전국 해수욕장 수질 적합
완도 종리·신안 백길 '우수'

완도 보길도 종리해수욕장과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이 수질이 우수한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특히 완도 보길도 종리 해수욕장과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의 경우 대장균 균수와 수질평가 종합점수 등을 고려해 각각 서·남해안에서 수질이 우수한 해수욕장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 한국 F1대회 기간 관람객을 싣고 여수를 입항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사전 시범운행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영암 F1경주장에 이어 전남도립극단의 공연과 남도음식 등을 체험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 브리핑

화장품에 '아토피·다이어트' 문구 못 쓴다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 명칭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이 포함된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2014년 도입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르면 3년 후부터 사육과 유통상의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르면 시일내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골프장 야간조명 단속 중단키로

정부가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이 결정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가 이날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해 달라는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업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성 김 주한미대사
오바마, 공식 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차기 주한미대사에 성 김(51) 6자 회담 특사를 공식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 김 대사 등의 지명 발표를 통해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미국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정부에 참여하게 돼 큰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조만간 이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김 지명자가 앞으로 미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주한미대사로 부임할 경우 지난 1882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129년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주한미대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상원의 인준은 8월 의회 휴회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성 김 대사는 8월중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 한국서 나온다

식약청 내달초 심장박축를 개선제 허가

내달 초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가 한국에서 허가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초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심장박축를 개선하는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람-AMI'를 품목허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약품이 허가되면 분화되지 않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로는 세계 첫 사례가 된다.

이처럼 현재 품목허가에 필요한 세 가지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행정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달 초 품목허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프씨비파미셀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급성심근경색 환자 40명과 대조군 40명 등 총 80명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환자군에서 좌심박축률(ejection fraction)이 약물 투여 전보다 5.

93%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대조군이 약물 투여 전보다 1.76% 증가한 것에 비해 4.17% 포인트 높은 수치다.

좌심박축률이란 심장의 좌심실이 좌심방으로부터 받은 피를 대정맥을 통해 뱉어내는 비중에 나타내는 지표로 심장 기능의 개선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첨단제제과 박운주 과장은 "재심사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내달 1일쯤 허가할 예정"이라며 "세계적으로 품목허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라며, 대안치료제가 별로 없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한국 F1대회 기간 관람객을 싣고 여수를 입항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사전 시범운행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영암 F1경주장에 이어 전남도립극단의 공연과 남도음식 등을 체험할 계획이다.

이들은 영암 F1경주장에 이어 전남도립극단의 공연과 남도음식 등을 체험할 계획이다.

이들은 영암 F1경주장에 이어 전남도립극단의 공연과 남도음식 등을 체험할 계획이다.

이들은 영암 F1경주장에 이어 전남도립극단의 공연과 남도음식 등을 체험할 계획이다.

영암 F1경기장 해외 여행사·팸투어단 러시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100여일 앞두고 해외 여행사 및 팸투어단이 영암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으로 몰려들고 있다.

일본 크루즈사 관계자들이 27일 영암 서킷을 방문, 내년도 크루즈선사 전 세련 유치 등 F1대회 관람 상품개발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고속선 등 23개 일본 여행업체와 케이신톤, 시가TV 등 7개 언론사 등 29일부터 7월 1일까지 F1 경주장을 둘러본다.

이번 행사는 일본 JR규슈 고속선

경매투자
공공투자자 및 자본주 중심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자산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도시락·식판급식·성당 교회결혼식뷔페·야외결혼식뷔페
www.party-food.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초대시장 공개모집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위원회
자격요건
제출서류(소정양식)
제출기한 및 제출처

천년의빛 영광 2011년도
이형만항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영광항우장학회 재단은 재광 영광항우회기초 중역 안정적인 확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공무원 특별자금
무이자 기금서비스
대출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공무원 대출
무방문·무담보·무보증·무조회기록
대출대상: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대출금액: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초대시장 공개모집
제출서류(소정양식)
제출기한 및 제출처
심사방법

천년의빛 영광 2011년도
이형만항우장학회 장학생모집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II. 구비서류
III. 선발일정